

# 전남 인구 감소 해법 '마을 현장'서 찾는다

### 김영록 지사, 진도 신기마을 주민좌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 지역맞춤형 정책 모색 생활인구 지속유입·주민 생활 개선 박차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마을 소득사업, 생활인구 늘리기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앞장 서고 있는 진도 신기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좌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뒤 지역 맞춤형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진도 신기마을은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돼 신기마을센터 건립, 어항시설 정비 등 마을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소득사업으로 울돌목에서 펄펄 뛰는 송어를 활용한 '프리미엄 신기하다 어묵'을 개발해 인기를 얻고 있다.

2023년엔 '도시민 전남어민 되다'라는 2주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남 섬 생활의 매력을 알리고 생활인구 늘리기도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고향사랑기부금 제형형 답례품 제공 사업에 신기마을이 시

범마을로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등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완료 후 전남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신기마을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신기마을 어촌계장과 마을 주민들은 '프리미엄 신기하다 어묵 제조설비 지원'과 '무조항 퇴적토 준설' 등 2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도에서 인증사업으로 추진하고 설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생활 민원부터 마을 활력 증진 방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신기마을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열린 마을로 좌담회를 통해 울돌목에서 펄펄 뛰는 송어를 활용한 어묵 등 주민 소득사업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모든 마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오후 진도 신기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음이 신기마을처럼 외지인을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전남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늘

어날 것"이라며 "전남도는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과 주민 생활 개선을 통해 '지금은 전남시

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김지사 "새 정부 황금찬스 잘 살릴 것"

### "전남, 단군 이래 최고의 발전 기회"

### "3건 예타 통과 지역 발전 기폭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2일 "이재명 정부 황금찬스를 잘 살리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전남이 단군 이래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지역에 참으로 반가운 세가지 경사가 한꺼번에 있었다"며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3건의 예타 통과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은 남해안의 새로운 학술, 생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18년간 지역 경제를 견인해온 화순광업소는 첨단스마트판단지와 바이오식품 클러스터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고흥-봉래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6천500억원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고흥읍에서 나로우주센터간 이동시간이 6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돼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주농기센터, '치유농업' 교육생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4일 "치유농업 전문 인력의 현장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유농업 전문인력 보수교육'에 참가할 교육생 25명을 오는 9월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월5-30일 총 5회 21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면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수료자, 치유농업 기술보급시범사업 대상자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광주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기술개발과 치유농업팀) 또는 온라인(이메일 nancmi30@korea.kr, 팩스 062-613-5289)으로 접수하면 된다. /변은진 기자

## 광주시, SRF 약취 개선 '민관합동 TF' 가동

### 市·區·의회·주민·전문가 등 15명 구성

### 정보 공유·모니터링·대책 마련 속도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약취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팀(TF)'이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관합동 TF는 효천 1·2지구 주민대표 5명, 최지현·임미란 광주시의원, 노소영 남구의원, 환경전문가 3명, 광주시·남구 담당 공무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으로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정진욱 국회의원실 강성곤 사무국장, 조재욱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14일 강기정 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은 주민간담회에서 SRF 제조시설 인근 약취 개선을 위해 ▲약취 문제 발생에 따른 법적 행정 절차 신속 진행 ▲광주시, 자치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TF 구성을 통한 SRF 시설 약취 해결방안 논의 등을 약속했다.

민관합동 TF 출범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 주민 대표들은 민관합동 TF 1차 회의에서 ▲SRF 가동 중단 ▲약취 상시 모니터링 ▲약취관리지역 지정 ▲약취에 포함된 성분 분석 ▲시설 운영상황 투명한 공개와 감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남구는 ▲약취 발생 시간 대 포집 ▲신속한 행정 처분 ▲약취관리지역 지정 검토 ▲약취 전문가 기술 자문 ▲약취 성

분 분석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남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SRF시설과 인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매일(시간대 불특정) 복합 약취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지난 19일 생산 가동 중 배출구에서 약취희석배수가 기준치(50 이하)보다 2배 초과한 '1천'이 측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SRF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청정빛고을'에 관련 법령 준수, 광주시와 사업 협에서 보충한 약취 성능 보증기준 준수 등을 요구했다.

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자체 가동 중지 등을 포함한 특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은진 기자

## 광주시의회 '복성중 학생 모의의회'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복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8회 광주시의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성중학교 학생 34명이 참여

했으며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 매점 설치 필요성', '청소년수면권 보장을 위한 등교 시간 조정'이라는 주제

로 2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조례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김기은 학생은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고소감을 밝혔다. /변은진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 차만손

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 1**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 2**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 3**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 4**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